

현대 속 전통 · 전통속 현대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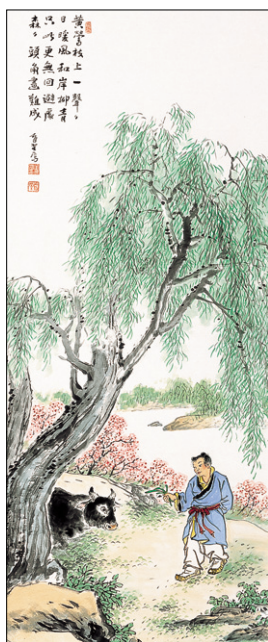
수당 김종국 화백 고회전 30일까지 쿠오리아 갤러리

한국화의 세계화를 위해 53년 동안 등양화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수당 김종국 화백의 고회전이 30일까지 서울 용산 크라운해태 쿠오리아 갤러리에서 열린다.

그간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성공적인 전시를 열어온 김종국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현대 속의 전통, 전통 속의 현대'란 주제로 수묵담채와 견본채색화 및 도자기 작품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십우도(十牛圖)' 작품들은 아일(野逸)하게 표현된 선과 밝고 화사한 채색으로 김 화백의 예술 경지가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미술평론가 최도송씨는 '수당은 세정화와 아일함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표현한다'며 "기교의 초월한 완숙미에서 오는 표현의 자유로



김종국 화백의 '십우도'.

움이 높은 격조를 이뤄낸다"고 설명했다.

김 화백은 전통적인 미감을 바탕으로 시대의 추이와 무관하지 않게 표출하는 작업을 고집해온 작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미를 새롭게 평가하고 알리며 한국 전통회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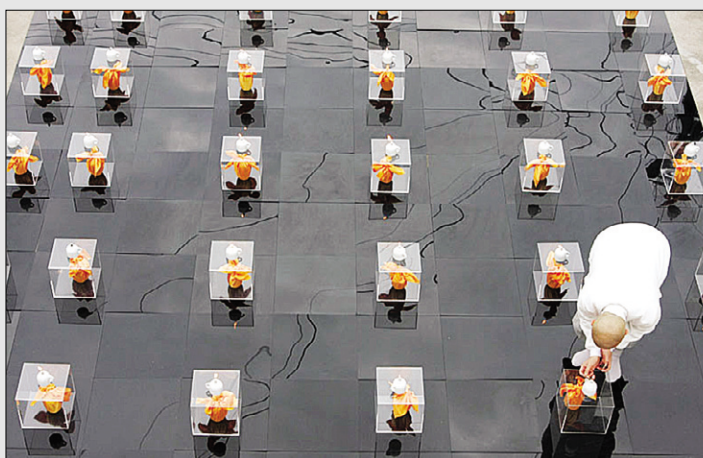
김종국 화백은 이번 전시작품을 마치고 "다음에는 필과 형의 과격뿐만 아니라 색과 재료에 대해서도 일체 걸림 없이 모든 걸 내려놓은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거기에 시대미감을 반영하며 자기 양식을 지켜나가는 김 화백의 전시를 통해 세태를 초월한 예술정신을 감상해 보자. (02)709-7404

이은정 기자

불복장, 현대 風 해석하니...

유일한 비구니 불복장 전문가 선진 스님... 29일까지 '동이이' 작품전



"부처님 담은 그 독이요? 그거 풍독이예요 하."

불단 위에 장엄돼 있어야 할 부처님이 풍독과 술독에 빠져있다. 불상 내부에 장엄물을 넣는 불장(佛腹藏)의식 전문가인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은 해맑게 웃으며 말한다. 풍독과 술독 안에 빠진 부처님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일이나, 스님은 너무나 천연덕스럽다.

"그 풍독 구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풍독 안에 말라붙어 있는 거 진짜 풍이예요." 선진 스님은 불교 전통의식 가운데 하나인 불복장 의식을 전수받았다. 불복장 전문가가 드를 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유일한 비구니가 선진 스님이다. 스님은 불복장 의식을 현대적 이고도 선(禪)적인 해석과 감각으로 재해석해 작품으로 탈바꿈시켰다.

"부처가 풍독에 들어가 있다고 부처가 아닌 것은 아니죠. 존재하는 상(相)만 다를 뿐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하나잖아요?" 스님이 풍을 화두로 집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건, 옛 선사들이 부처와 조사를 '풍막대기'라고 꾸짖고, 스님이 입는 옷을 '본소의(糞掃衣)'라 해 풍을 닦아낸 천을 다시 기워 만든 것에 착안했기 때문이라.

선진 스님이 작품에 대해 고심하며 명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바로, 이거다"라며 작품을 만든 것이 '풍독, 불상'이라는 작품이다. 스님의 또 다른 작품 중 '술독, 불상'은 깨진 술독 안에 부처가 앉아있는 모습이다.

"처음엔 술독이 온전했는데,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작품을 옮기던 중 그만 독이 깨져 버렸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다시 들여다보니 작품에 새로운 의미가 보였어 있더라고요."

스님의 아이디어에 우연한 사건이 더해지며 탄생한 '술독, 불상'은 비하인드 스토리만으로도 청량한 감로수와 같은 가르침이다. 더욱이 깨진 술



독을 통해 바라본 부처의 모습은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에 범등을 밝혀 주기 위해 술독을 깨고 나온 것처럼도 보인다. 더욱 성스럽지 아니한가.

작품 감상에 앞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스님이 부처를 가장 더러운 풍독과 술독에 둔 것이 부처님에 대한 폄하가 아닌 최고의 공경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 스님은 생과 사, 염(染)과 정(淨), 유와 무, 미와 추, 생생과 소멸 등 둘이 아닌 모든 상을 넘어 한마음에서 비롯됨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 '은복 여래상' 또한 불복장 의식을 독창적인 추상미로 재현했다. 바닥에 깔린 100여 장의 검정색 아크릴판은 무명번뇌의 증생을 의미한다. 번뇌가 곧 보리며 증생이 곧 부처 아니던가. 또한 흰색 아크릴 상자 속 노란색 보자기는 불신(佛身)을 뜻한다. 황초 보자가 안의 후령통에는 복장물 75가지가 각각 담겨 있으며, 호롱불은 한마음, 화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등불이다.

"작품에서 불교적인 전통 소재를 현대미술 형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술독, 불상', '풍독, 불상', '선진 스님', '은복 여래상' 호롱불에 불을 켜고 있는 선진 스님.



식에 집중시킨 까닭은 불복장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켜 주고 싶었어요. 누구나 쉽게 불복장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부처가 왜 한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동이이(同而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진 스님의 전시는 작품 하나하나가 감로법문이고, 선기(禪機)가 활활발발한 법석이다.

파괴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며, 예술인이자 구도자로 송고한 삶을 사는 스님의 전시는 29일까지 대구동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053)951-3300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밀양불교합창단 합창경연대회 대상

조계종 문화부 개최 불교합창페스티벌 성료

조계종 문화부가 11월 15일 개최한 '2009 불교합창페스티벌'의 불교합창경연대회에서 밀양 불교사암연합회 밀양불교합창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서울 관음사합창단, 부산 법연원합창단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부산 한마음선원합창단, 청주 명상사 관음합창단, 대전 비구니 청림회합창단, 대전 진각종 심인합창단, 부여 보리사 보리수 합창단, 공주동화사 합창단, 대구 여성불자연합회 우무벨라합창단, 대구 한국불교대학 가톨릭가합창단, 포항 불교사암연합회 포항BBS불교방송합창단 등 9개 팀에게 돌아갔다.

이날 합창경연은 합창단간의 경쟁을 즐기기 위해 시상분야를 축소시키고 상급차이도 줄였으며 참가하는 모든 팀에게 상금이 돌아가도록 했다.

불교음악예술원(원장 이발철)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출연진



불교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밀양 불교사암연합회 밀양불교합창단.

1400여명, 관중석 1800여명 등 3000여명이 넘는 사부대중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성황리에 봉행됐다.

한편 2부 행사인 원로불교음악인을 위한 특별음악회에서는 원로불교음악인들에 대한 공로패가 수여됐다. 그들의 작품을 7개 지역의 합창단이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의 연주에 맞춰 연합합창 함으로써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은정 기자

단청장 석은 홍점석 선생 영화세계 단청 작품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을 맞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석은 홍점석 선생이 영화세계 단청 작품전을 발표한다. 단청문양 영화장 세계보존연구회가 주최하고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삼라만상의 모든 빛깔, 영화장 단청 세계 2009'란 주제로 12월 2-8일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홍점석 선생은 "단청의 문양은 독립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영화화생적 체계에 의해 짜여져 있다"며 "이번 전시는 단청문양의 체계적 의미를 전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점석 선생의 이번 단청 작품발표회는 선조들의 송고한 영혼과 민족정서를 느낄수 있는 기회이다. (02)733-5322

이은정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킵니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 | |
|--------------|-------------------------------|---------|
| 9번 구분 | 가 루 자죽염 125g | 27,500원 |
| | 가 루 자죽염 230g | 50,000원 |
| | 알갱이 자죽염 125g | 30,000원 |
| | 알갱이 자죽염 230g | 55,000원 |
| 2번 구분 | 보급형 민속죽염 500g | 10,000원 |
|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 |
| |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

생명있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하시던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기도와 농사 짓는 수행속에서 직접 재배한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당조고추, 향과 맛이 뛰어난 사과, 배추, 쌀, 등등 농산물을 대덕 큰스님 및 불자님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당조고추는 많은 인기를 얻어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흥 당조고추를 가루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토원을 찾아주시는 불자님과 대중들이 직접 따 흘리며 한점 부끄럼 없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의 수확의 기쁨을 여러 불자님과 나누고자 지면으로 판매를 알리오니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성불 하십시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번지 054) 383-0407 / 010-2750-4394

정토원 주지고봉합장

정토원에서 재배한 농산물

1. 사과
2. 당조고추 (고추가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3. 홍화씨
4. 배추, 고사리, 고구마, 쌀